

리디아 고 LPGA HSBC 월드 챔피언십 우승

티피곤·후루에 4타차로 따돌리고 23번째 우승
임진희 공동 4위... 김아림·김효주는 공동 7위

리디아 고(뉴질랜드)가 미국여자 프로골프(LPGA) 투어 시즌 첫 승을 거뒀다.

리디아 고는 2일 싱가포르 센토사 골프클럽(파72·6천779야드)에서 열린 LPGA 투어 HSBC 위민스 월드 챔피언십(총상금 240만달러) 4라운드에서 3언더파 69타를 적어 내 최종 합계 13언더파 275타로 우승 상금 36만달러를 거머쥐었다.

공동 2위를 차지한 지노 티피곤(태국), 후루에 아야가(일본·이상 9언더파 279타)를 4타 차로 따돌린 완벽한 우승이었다.

리디아 고는 지난해 2024 파리 올림픽 금메달과 LPGA 투어 3승을 거두며 최고의 한 해를 보낸 뒤 올 시즌 개막전인 힐튼 그랜드 배케이션스 토너먼트 오브 챔피언스에서도 6위로 선전했다.

두 번째 대회인 파운더스컵에선 공동 48위에 그쳤지만, 시즌 세 번째 출전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합박웃음을 지었다.

리디아 고는 이 대회 우승으로 LPGA 투어 통산 승수를 23승으로 늘렸다.

이날 리디아 고의 집중력은 대단했다. 5번 홀까지 타수를 줄이지 못하며 2위 그룹에 쫓기다가 6번 홀(파4)부터 8번 홀(파5)까지 3연속 버디 행진을 펼쳤다. 정확한 퍼트로 한 타씩을 줄이면서 독주했다.

전반에 3타를 줄인 리디아 고는 후반부에 살짝 흔들렸다. 난코스인 11번 홀(파4)에서 이날 첫 보기를 범했다.

2위 그룹에 3타 앞선 리디아 고는 13번 홀(파5)에서 버디를 잡으며 격차를 다시 벌렸다. 15번 홀(파3)에서 다시 버디를 낚은 리디아 고는 3개 홀을 남기고 2위 그룹을 4타 차로 따돌렸다. 이후 안정적인 운영으로 침착하게 경기를 마무리했다.

마지막 18번 홀(파4)에선 두 번째 샷이 벙커안으로 들어갔으나 깔끔한 벙커샷으로 공을 홀 옆에 붙인 뒤 파 세이브로 마무리했다.



우승 트로피 든 리디아 고.

연합뉴스

한국 선수들도 선전했다. 임진희는 이날 5언더파 67타를 몰아치면서 최종 합계 7언더파 281타로 찰리 힐(잉글랜드), 가비 로페스(멕시코)와 공동 4위에 올랐다.

2라운드까지 단독 1위를 질주하다가 3라운드에서 공동 4위로 떨어진 김아림은 이날 이븐파 72타에 그치면서 최종 합계 6언더파 282타로 공동 7위를 기록했다.

김아림은 올 시즌 개막전에서 우승한 뒤 두 번째 출전 대회인 혼다

LPGA 타이랜드에서 공동 6위에 올랐고, 세 번째 출전 대회에서도 '톱10'에 이름을 올렸다.

이날 4언더파 68타를 친 김효주는 김아림과 함께 공동 7위에서 어깨를 나란히 했다.

최혜진은 최종 합계 5언더파 283타로 공동 11위, 고진영과 유해란은 최종 합계 3언더파 285타로 공동 18위에 포진했다. 이미향과 양희영은 공동 21위(2언더파 286타)를 기록했다.

연합뉴스

제3대 제주시사격연맹회장 김태조 씨 당선 소년체전 제주 사격 사상 첫 금메달 주인공

제3대 제주시 사격연맹 회장에 김태조 전 제주특별자치도사격연맹 전무이사(사진)가 당선됐다.

제주시 사격연맹은 지난달 26일 회장선거에 단독 임 후보인 김태조 후보의 당선을 공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김태조 당선인은 제주도 사격 금메달 1호로 1977년 제6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제주 사격 역사상 첫 금메달을 획득한 주인공이다. 일반부 및 대학부 시절에는 전국체육대회에서도 금메달과 동메달을 따낸 엘리트 사격선수 출신이다. 2007년부터 현재까지 약 18년간 제주시사



격연맹 행정업무를 수행해 왔으며, 지난해 파리 올림픽 사격 국가대표 홍영욱 코치의 남편이기도 하다.

김 당선인은 "앞으로 도사격연맹 행정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침체된 제주시 사격연맹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엘리트 학생선수는 물론 동호인 사격 활성화에도 심혈을 기울여 제2의 오예진을 발굴하고 싶다"고 소감을 피력했다.

위영석기자

대한게이트볼협회장 정성룡 씨 당선

정성룡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고문(사진)이 대한게이트볼협회장에 당선됐다.

정 당선인은 지난달 26일 대한게이트볼협회에서 열린 회장 선거에서 2급 심판 시험의 지역 시·도협회 회장, 국제대회 유치와 아시아 게이트볼 사무국 유치 노력, 게이트볼 위상과 홍보를 위한 노력 등을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선임 회장에 선출됐다.

정 당선인은 제주도체육회 고문, 주식회사 제이스건설 대표이사, 코메리카 대표이사를 맡고 있으며 대한게이트볼협회 중앙회 이사, 제주도 게이트볼협회 부회장, 부산광역시 영도구 재향군인회 부회장 등을



역임했다. 정 당선인은 대한체육회 감사패, 대한게이트볼협회 회장 공로패, 제주시장 표창패 등도 수상했다.

정 당선인은 "그동안 제주도체육회와 제주도게이트볼협회에서 게이트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게이트볼협회의 위상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라며 "앞으로 전국 17개 시도 협회장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게이트볼 활성화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위영석기자

제18대 제주마주협회장 조경수 대표 연임

제주마주협회 제18대 회장에 조경수(주)금남여객 대표(사진)가 연임됐다.

(사)제주마주협회(회장 조경수)는 지난달 26일 메종글래드 제주호텔에서 회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2024년 결산안과 2025년도 예산안을 승인하고 제18대 임원을 선출했다.

제18대 회장에는 17대에 이어 조경수 금남여객 대표가 선출됐으며 부회장은 이한근 마페영농조합 대



표, 감사는 고임계·변공민 씨가 선임됐다. 조 회장의 임기는 2년이다.

조 회장은 제주경마장 14두, 서울경마장 11두를 등록한 마주로 알려져 있다. 조 회장은 "마주의 명예와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제주 말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위영석기자



제주의 미드필더 이탈리아 바르셀루스(뒤쪽)가 공을 두고 경합하고 있다. 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제주SK 강원과 '수중전' 끝에 무승부

2일 K리그1 3R 0-0 종료

'홈 개막전 1승1패'로 원정에 나선 제주SK FC가 많은 비가 쏟아지는 수중전 끝에 무승부로 승점 1점을 따냈다.

제주는 지난 2일 오후 춘천 송암스포츠타운에서 열린 2025 K리그1 3라운드 강원FC와의 경기에서 0-0으로 비겼다.

홈 개막 2연전에서 골을 기록한 이진희 유인수 김준하를 전방에 내세운 제주는 전·후반 내내 강원과 팽팽한 대결을 펼쳤지만 득점에는 실패했다.

전반전이 시작되자마자 터진 오재혁의 강력한 슈팅이 강원 골키퍼 이광연의 선방에 막힌 게 아쉬

웠다. 이와 함께 김동준 대신 골키퍼로 나선 안찬기는 3차례 정도의 결정적 유효 슈팅을 막아내는 활약을 펼쳐 클린시트를 기록했다.

제주는 후반 60분 이진희와 김준하, 오재혁을 유리 조나탄과 서진수, 남태희로 교체하며 총력전에 나섰지만 득점에는 실패했다.

제주는 지난 시즌 첫 강원과의 원정경기에서 1-1로 비기던 이어올해도 시즌 첫 강원 원정 경기를 무승부로 마무리했다. 제주는 올 시즌 1승1무1패로 승점 4를 확보했다.

제주는 오는 9일 울산현대와 원정경기를 펼친 후 15일 5라운드에

서는 대전과 홈경기를 치른다.

위영석기자 yswi1968@ihalla.com

Table with columns for KBS1, KBS2, MBC, JIBS/SBS, and EBS1, listing various news and entertainment programs.

오늘의 운세 4월. A section containing zodiac horoscopes for 12 signs, including a date for the start of the lunar new year (Lunar New Year on March 27th).